

광주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간 호 과 김 숙 정
조 교 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통합된 총체적 존재로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또한 인간은 개방체계로서 여러가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 건강을 유지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다.¹⁾

인간이 보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 인간의 욕구체계와 가치 체계도 변화하여 인간의 관심이 생활의 양적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더 치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모색이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 심리사회학등 여러 학문분야의 중심목표가 되었다.^{2),3)} 한편 의료분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환자의 질적 삶에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생명의 보존과 수명연장에 역점을 두어왔던 종래의 의학적 가치관에서 차츰 생의 의미와 대상자의 총체적 측면의 질적 삶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⁴⁾

또한 간호학에서도 1980 년에 들어서면서 인간의 삶의 의미와 만족스런 삶을 위한 간호방법의 모색이 필연적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간호의 본질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그 대상으로 하여금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서 안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대상자들이 최적의 안녕상태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므로 삶의 질은 특히 간호학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5),6)}

인생의 주기중 중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며 그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삶의 만족을 분석하기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광주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 ②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본다.
- ③ 현재 건강지각 수준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3. 용어정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 :QL)

삶의 질이란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 (subjective well-be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상태, 경제생활, 자아존중감, 신체상태와 기능, 이웃관계, 가족관계가 포함된 47개항목에 대하여 지각하는 정도를 5점 평점척도로 측정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II. 문헌 고찰

1. 삶의 질 (Quality of Life :QL)의 개념

삶의 질의 개념은 각 연구자마다 접근하는 관점, 목적, 방법에 따라 다르게 보고 있어 복잡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Campbell에 따르면 삶의 질이란 용어는 세계 제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좋은 삶 (the good life)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³⁾ 이후 Gurin Veroff, Fedal(1960), Cantril(1965)과 Brad burn(1969) 등은 삶의 질을 행복에 대한 지각, 삶의 대한 만족 혹은 안녕의 감각으로 정의했으며⁸⁾ Dubos(1976)는 '일상생활에서 활동의 뜻 깊은 만족'이라고 표현했다.⁹⁾

한편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는 인간의 '삶의 질' 또는 '행복도' 측정을 위한 도구로서 사회지표의 개념이 이해되기도 한다.¹⁰⁾ 그리고 삶의 만족도라는 지표를 이용하고 안녕상태의 일반적인 느낌을 반영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는 연구들도 많아지고 있다.¹¹⁾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여러분야들은 대체적으로 의학, 간호학, 사회학, 심리학등으로서 각 분야마다 삶의 질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삶의 질은 인간의 안녕과 복지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의 차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⁵⁾ 또한 객관적 측면으로도 정의되었는데 주로 직업, 증상, 건강, 성생활을 외적기준에 의해 측정하였다.¹²⁾¹³⁾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를 보면 각 연구자마다 내린 질적 삶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사회학 영역에서 이미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수정, 보완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새로운 도구로 개발하여 사용하는 등 각기 다른 도구들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¹⁴⁾

국내에서도 삶의 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1975년 현오석에 의해 생활의 질 지표 또는 사회 지표가 개발되었는데 크게 경제지표, 비경제지표로 나누어 총 60개의 지표로 제

시하였고 비경제지표를 보면 인명존중도지표, 인간환경지표, 생활만족감지표가 포함되었다.¹⁰⁾ 그리고 김동일의 2인(1981)에 의해 사회지표 구성을 위해서 한국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대해 보고 했고¹⁵⁾ 또한 정철모(1980)에 의한 한국도시에 있어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보면 생활수준지표와 복지수준지표로 나누어 영향, 주거, 건강, 교육, 여가, 안전, 환경, 신체상태, 교육상태, 사회상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⁶⁾

그리고 김명자(1982), 임미숙(1985), 김종숙(1987)에 의해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도 제시되어 있다.¹⁷⁻¹⁹⁾ 특별히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1988년 노유자가 삶의 질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삶의 질 내용을 보면 정서상태, 경제생활, 자아존중감, 신체상태와기능, 이웃관계, 가족관계 등 6개요인의 다차원적인 측면으로 한국인의 실정에 맞는 삶의 질에 개념적 모델로 제시되어 간호연구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 간호의 궁극적인 목적인 삶의 질의 증진 정도를 파악하는 평가기준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의 여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할 연구결과들도 다수 보고되어 있다.²⁰⁻²³⁾

2. 삶의 질에 관련된 변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고자 시도했던 기존 연구결과를 보면 삶의 질에 관련된 변인들은 성별, 연령, 교육, 직업, 수입, 결혼상태, 종교, 건강 등이었다.⁵⁾ 그러나 삶의 질을 측정할 도구와 대상 또는 상황에 따라 관련 변인이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삶의 질과 관련된 제 변인들과의 관계가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았다. 국내 연구결과만 살펴보다라도 하재구(1986)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중년층이 청년층이나 노인층보다 생활 전반의 행복도가 더 높으며 학력이 높을 수록 중간정도의 소득층이 소득이 아주 적거나 아주 많은 경우보다 삶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²⁴⁾ 노유자(1988)의 연구에서는 연령별로 30대가 삶의 질 평균 점수가 가장 높고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교육정도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고, 직업별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가정 월수입이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으며, 종교가 있는군이 비종교군에 비해 삶의 질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결혼 생활군이 사별, 이혼, 별거군보다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고 주택소유와 주거형태별로는 주택자가소유군과 아파트, 연립주택군에서 높았고 또한 질병유무별 삶의 질 점수는 질병이 없는 군이 이웃관계 요인만을 제외하고 높았으며 특히 현재 건강지각이 삶의 질 점수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고 제시되었다.⁵⁾

또한 혈액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의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려고 시도한 김인희(1988)의 연구에서는 성별(남), 교육정도(대졸이상), 가족수(5~6명), 직업(서비스직), 가정월수입(100만원 이상) 변인에서 삶의 질이 높게 보고되었다.²⁰⁾ 양승희(1989)의 연구에서는 성별(여자), 직업(주부), 가정월수입(60만원 이상), 주택소유(자가소유) 변인에서 삶의 질이 높다고 보고되었다.²¹⁾ 또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할 한운복의 3인(1990)의 연구결과에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합병증이 없고 지각된 질병의 증증도가 경한 군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보고되었다.²²⁾

이상과 같이 삶의 질과 관련된 제 변인들과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일치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30세에서 59세사이의 기혼 남녀이며 질문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1년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였으며 자료 수집방법은 광주시내 1개 유치원과 국민학교, 2개 중고등학교, 1개 전문대학의 학부형 및 교직원과 2개 회사원, 지역주민 공무원들에게 1,000 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어 620 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연령과 거주지가 연구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것과 미완성된 질문지를 제외한 506 부가 실제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1988년 노유자가 개발한 47문항 5점평점 척도의 자기 보고식 삶의 측정도구로 정서상태(9문항), 경제생활(11문항), 자아존중감(8문항), 신체상태와기능(9문항), 이웃관계(4문항), 가족관계(6문항) 등 6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s α 계수는 .9438로 높았고 각 요인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6591 ~ .8819의 범위였다. 또한 이 도구는 “매우 만족한다”에서 “매우 불만족스럽다”까지 또는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점 평점척도로 측정하게 되어있으며 최저 47점에서 최고 235점까지의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가 .9169로 높게 검증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구학적 특성과 현재건강수준 항목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했고 삶의 질 정도는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삶의 질 정도 차이를 검정하기에 T-검정, 분산분석검정을 했고 현재건강지각수준과 삶의 질 정도와의 관계분석은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삶의 질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계적 중회귀분석이 적용되었다.

4. 연구의 제한점

조사대상자를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중년기 성인을 편의표집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다른 집단이나 다른 연령층에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는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광주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 정도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구분	표본수	빈도	인구학적 특성	구분	표본수	빈도
연령	30~39	249	49.2	가족수	2명이내	64	12.6
	40~49	202	39.9		3~4명	312	61.7
	50~59	55	10.9		5~6명	115	22.7
성별	남	269	53.2		7~8명	12	2.4
	여	236	46.6		8명이상	3	0.6
	무응답	1	0.2	자녀유무	없다	23	4.5
종교	기독교	164	32.4		있다	483	95.5
	불교	102	20.2	직업	무직	3	0.6
	유교	15	3.0		주부	110	21.7
	천주교	60	11.8		상업, 기업	61	12.0
	기타	5	1.0		회사, 공무원	231	45.6
	없음	156	30.8		전문, 기술직	75	14.9
	무응답	4	0.8		서어비스직	7	1.4
교육정도	무학	3	0.6		기타	19	3.8
	국졸	21	4.1	가정월수입	20만원미만	4	0.8
	중졸	59	11.7		21~40만원	28	5.5
	고졸	178	35.2		41~60만원	91	18.0
	대졸	198	39.1		61~80만원	120	23.7
	대학원	43	8.5		81~100만원	145	28.7
	무응답	4	0.8		101~150만원	70	13.8
	현재결혼상태	기혼	487		96.2	150만원이상	39
사별		9	1.8		무응답	9	1.8
이혼		4	0.8	주택소유	자	314	62.0
별거		4	0.8		전	162	32.0
기타		2	0.4		월	14	2.8
결혼기간	5년이내	70	13.9		기	16	3.2
	10년이내	120	23.7	주거형태	단독주택	253	50.0
	15년이내	111	21.9		연립주택	12	2.4
	20년이내	113	22.3		아파트	221	43.7
	25년이내	57	11.3		기타	20	3.9
	30년이내	26	5.1	질병유무	없다	441	87.1
	35년이내	9	1.8		있다	59	11.7
무응답	6	1.2	무응답		6	1.2	

대상자의 삶의 질 총점 평균점수는 149.08점 이었고 범위는 최저 104점부터 최고 219점이며 표준편차는 18.390점 평균평점이 3.7로 나타났다. 삶의 질 정도를 각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정서상태 요인은 평균평점 2.91, 경제생활요인 3.04, 자아존중감요인 3.40, 신체상태와 기능요인 3.03, 이웃관계요인 3.28, 가족관계요인 3.46 순으로 가족관계요인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정서 상태 요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결과를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노유자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때 서울 시민의 삶의 질 총점 평균 점수는 154.20이며 범위는 최저 74점에서 최고 233이었는데 본 연구에서 다소 평균 점수는 낮으나 비슷한 결과이며 삶의 질 요인별로는 노의⁴⁾ 연구에서는 경제생활, 신체상태와 기능, 정서상태, 가족관계, 이웃관계, 자아존중감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요인별 순위가 다르다.

2.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삶의 질 총점분석

인구학적 제 변인과 삶의 질 정도와의 관계는 (표 2)와 같다.

연령별 삶의 질 평균점수를 보면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30대 군이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정도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 분산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4$). 직업별로는 기타군을 제외하고 회사원, 공무원군이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전문직, 기술직, 서어비스직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 유의성은 없었다. 가정월수입별로는 월수입이 많을수록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성별 삶의 질 평균점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높은 편이고 종교유무별 삶의 질 평균점수도 종교가 있는군이 높은 편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결혼 상태와 기간별 삶의 질 평균점수는 결혼 생활군이 유의있게 높았으며 ($P = .029$), 결혼기간은 6~10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주택소유와 주거형태별 삶의 질 평균점수는 자가 주택소유가 높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고 주거형태가 단독 주택보다 아파트, 연립주택군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 = .049$). 질병유무별로는 질병이 없는군이 질병이 있는군보다 유의하게 삶의 질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P = .048$).

이상과 같이 인구학적 제 변인과 삶의 질 총점평균과의 차이를 분석해본결과 교육정도, 월수입, 결혼상태, 주거형태, 질병유무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 직업, 성별, 종교, 주택소유, 결혼기간, 가족수, 자녀유무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와 같은 도구로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노⁵⁾의 연구와 비교해보면 노의 연구에서는 연령, 교육정도, 직업, 월수입, 종교, 결혼상태, 주택소유와 주거형태, 질병유무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교육정도와 월수입, 결혼상태, 주거상태에서는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나, 연령, 직업, 종교, 주택소유에서는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평균점수에서는 각 변인마다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똑 같은 도구로 투석환자나 암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이 동일한 결과를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³⁰⁻³²⁾

표 2. 삶의 질 총점 평균치의 인구학적 변인별 비교

삶의 질 총점		평균±표준편차	F or t	P
인구학적 변인 (표본수)				
연령	30~39 (249)	149.73±19.59	.731	.482
	40~49 (202)	149.01±16.87		
	50~59 (55)	146.41±18.17		
교육정도	중졸이하 (83)	143.53±19.84	4.471	.004 **
	고졸 (178)	148.47±19.52		
	대졸이상 (241)	151.59±16.59		
직업	무직 (3)	146.66±7.57	1.874	.071
	주부 (110)	147.21±20.12		
	상업,기업 (81)	145.78±17.78		
	회사,공무원 (231)	149.89±17.70		
	전문,기술직 (75)	149.77±17.95		
	서비스직 (7)	147.42±9.94		
	기타 (19)	161.63±21.35		
월수입	40만원이하 (32)	141.75±14.02	4.479	.001 **
	41~80만원 (211)	147.70±19.84		
	81~100만원 (145)	149.95±17.56		
	101만원이상 (109)	153.75±16.04		
성별	남 (269)	149.85±18.38	.682	.506
	여 (236)	148.26±18.42		
종교	유 (346)	150.15±18.18	2.396	.092
	무 (156)	146.53±18.59		
결혼상태	결혼생활 (487)	149.51±18.22	3.561	.029 *
	사별,이혼,별거,기타 (487)	137.94±20.67		
주택소유	자 가 (314)	149.48±16.54	.328	.720
	전·월세,기타 (191)	148.38±21.14		
주거형태	단독주택 (253)	147.40±19.92	3.027	.049 *
	아파트,연립,기타 (250)	150.93±16.57		
질병유무	무 (441)	149.74±18.66	2.654	.048 *
	유 (59)	144.55±15.86		
결혼기간	5년이하 (70)	150.67±17.12	1.740	.139
	6~10년 (120)	150.75±21.42		
	11~20년 (224)	148.59±16.39		
	21~30년 (83)	148.15±19.11		
	30년이상 (9)	135.33±21.44		
가족수	4명이하 (376)	149.87±18.63	2.716	.100
	5명이상 (130)	146.80±17.54		
자녀유무	없 다 (23)	147.17±15.81	.138	.937
	있 다 (481)	149.19±18.54		

* P < 0.05 ** P < 0.01

3. 삶의 질 요인별 분석

삶의 질 요인별 평균 점수와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관계 분석은 (표 3)과 같다.

표 3. 요인별 삶의 질 평균 점수의 인구학적 변인별 비교표

인구학적 특성(표본수)	요인		정서상태		경제생활		자아 존중감		신체상태와 기능		이웃관계		가족관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 령	30~39	(219)	26.26± 6.45	33.31± 5.90	27.56± 4.92	28.22± 4.80	13.10± 2.24	21.22± 3.61	F	.862	1.127	.324	19.25± 3.95	20.75± 3.61				
	40~49	(202)	25.86± 4.88	33.80± 5.23	27.01± 4.36	28.20± 4.32	13.35± 2.11	20.80± 3.77										
	50~59	(55)	27.18± 5.40	32.76± 5.80	26.60± 3.95	28.25± 3.85	12.50± 2.32	21.39± 3.42										
	P																	
교육 정도	중졸이하	(83)	26.31± 5.84	31.09± 4.76	26.27± 4.99	27.42± 5.13	13.16± 2.46	19.25± 3.95	F	.164	.920	7.907	20.80± 3.77					
	고졸	(178)	26.36± 6.52	32.77± 5.87	27.29± 4.97	27.98± 4.91	13.22± 2.13	20.80± 3.77										
	대졸이상	(241)	27.07± 5.15	34.77± 5.42	27.65± 4.19	28.71± 3.90	13.08± 2.19	21.39± 3.42										
	P																	
직업	부직	(3)	25.33± 4.04	31.00± 5.56	27.33± 1.15	28.33± 3.21	14.33± .53	20.33± 2.51	F	.355	.927	3.021	20.61± 3.68					
	주부	(110)	26.11± 5.94	32.19± 6.00	27.12± 5.01	27.82± 4.67	13.33± 2.39	20.61± 3.68										
	상업,기업	(61)	26.59± 5.59	32.89± 5.61	26.91± 5.04	28.70± 4.64	12.90± 2.33	19.78± 4.39										
	P																	
월수입	회사,공무원	(231)	26.00± 5.45	34.03± 5.47	27.26± 4.27	28.68± 4.21	12.95± 2.18	20.99± 3.58	F	.822	1.270	2.430	20.99± 3.58					
	전문,기술직	(75)	26.30± 5.56	33.96± 5.63	27.69± 4.30	27.69± 5.10	13.24± 1.84	20.99± 3.58										
	서비스직	(7)	25.42± 5.65	33.85± 3.48	25.00± 2.16	27.14± 2.85	13.57± 2.08	22.42± 2.63										
	P																	
성별	남	(269)	25.87± 5.50	33.94± 5.66	27.06± 4.57	28.79± 4.47	13.06± 2.19	19.21± 3.89	F	.882	.375	2.461	20.67± 3.52					
	여	(236)	26.59± 6.03	32.91± 5.56	27.46± 4.67	27.56± 4.46	13.25± 2.22	20.89± 3.82										
	P																	
	P																	
종교	유무	(346)	26.41± 5.87	33.69± 5.75	27.45± 4.54	28.41± 4.46	13.29± 2.14	20.87± 3.70	F	.878	.508	3.188	20.55± 3.69					
	무	(156)	25.77± 5.45	32.95± 5.28	26.76± 4.77	27.70± 4.51	13.78± 2.30	20.55± 3.69										
	P																	
	P																	

인구학적 특성(표본수)	요인	정서 상태	경제 생활	자아 존중감	신체상태와 기능	이웃 관계	가족 관계
성별, 연령, 직업, 소득	평균 지표준편차	26.25± 5.72	33.51± 5.60	27.30± 4.62	28.29± 4.50	13.17± 2.19	20.98± 3.59
	F	.320	.993	.870	2.984	1.295	15.40
직업	평균 지표준편차	25.11± 6.86	31.58± 6.64	25.82± 4.51	26.94± 4.20	12.29± 2.73	16.17± 4.14
	F	.726	.371	.419	2.984	1.295	15.40
주거 형태	평균 지표준편차	26.13± 5.20	34.13± 5.35	27.03± 4.26	28.24± 4.10	13.13± 2.11	20.79± 3.88
	F	.658	6.530	5.14	28.19± 5.13	13.14± 2.36	20.82± 3.77
소득	평균 지표준편차	26.31± 5.81	32.31± 5.81	27.58± 5.14	28.19± 5.13	13.14± 2.36	20.82± 3.77
	F	.281	.630	1.152	.261	.363	.027
주거 형태	평균 지표준편차	26.11± 6.10	32.49± 5.87	27.13± 4.94	28.07± 4.87	13.12± 2.23	20.47± 3.77
	F	.079	8.285	.160	1.480	13.16± 2.20	21.21± 3.56
직업	평균 지표준편차	26.31± 5.42	34.46± 5.42	27.36± 4.29	28.41± 4.10	13.16± 2.20	21.21± 3.56
	F	.924	.0003 **	.852	.228	.090	5.502
주거 형태	평균 지표준편차	26.21± 5.85	33.55± 5.78	27.38± 4.66	28.50± 4.50	13.16± 2.20	20.94± 3.64
	F	.152	1.507	1.654	6 5.611	13.00± 2.32	19.86± 4.12
직업	평균 지표준편차	26.20± 5.27	32.66± 4.46	26.87± 4.30	26.16± 4.04	13.00± 2.32	19.86± 4.12
	F	.928	.211	.176	6 5.611	.633	2.136
연령	평균 지표준편차	26.08± 4.98	33.48± 5.52	26.00± 4.15	28.70± 4.38	13.06± 2.17	21.34± 3.85
	F	.388	.802	.341	.419	.085	.000 **
성별	평균 지표준편차	26.35± 6.75	33.67± 6.18	27.45± 4.98	28.46± 4.92	13.30± 2.14	21.51± 3.49
	F	.048	.521	.724	.481	.315	15.15
연령	평균 지표준편차	25.81± 5.62	33.55± 5.29	27.08± 4.62	27.99± 4.31	13.24± 2.24	20.90± 3.47
	F	.827	.113	.395	.488	.575	.001 **
직업	평균 지표준편차	27.27± 5.07	33.02± 5.81	27.00± 4.43	28.31± 4.58	12.90± 2.20	19.63± 3.86
	F	1.035	.409	1.131	.978	2.053	8.32
연령	평균 지표준편차	26.55± 5.96	31.66± 5.93	25.11± 3.88	26.00± 4.06	11.93± 2.06	15.66± 4.03
	F	.388	.802	.341	.419	.085	.000 **
성별	평균 지표준편차	26.18± 5.94	33.68± 5.59	27.35± 4.63	28.30± 4.63	13.17± 2.18	21.18± 3.56
	F	.048	.521	.724	.481	.315	15.15
연령	평균 지표준편차	26.30± 5.19	32.77± 5.72	26.95± 4.57	27.98± 4.14	13.04± 2.28	19.73± 9.25
	F	.827	.113	.395	.488	.575	.001 **
직업	평균 지표준편차	25.65± 3.32	34.30± 4.83	27.13± 3.86	28.69± 4.47	12.82± 2.24	18.56± 3.32
	F	1.165	.494	.569	1.097	.669	3.394
연령	평균 지표준편차	26.25± 5.84	33.42± 5.67	27.24± 4.65	28.18± 4.51	13.16± 2.21	20.92± 3.70
	F	.322	.686	.635	.349	.635	.017 *

* p < 0.05 ** p < 0.01

삶의 질 하위 영역을 구성하는 6개요인은 정서상태, 경제생활, 자아존중감, 신체상태와 기능, 이웃관계, 그리고 가족관계요인이다. 정서상태 요인은 각 집단마다 평균 점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경제생활요인에서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월수입이 많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아존중감 요인에서는 월수입 정도에 따라서 수입이 많을수록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신체상태와 기능요인에서는 직업, 월수입, 성별(남), 질병유무(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웃관계 요인은 연령(40대), 종교(유)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가족관계 요인은 연령(30대),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직업(월수입이 많을수록), 결혼생활군, 주거형태(아파트, 연립주택), 결혼기간(5~10년), 가족수(4명 이내), 자녀가 있는 대상들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노⁵⁾의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경제생활요인에서 교육정도가 높고, 월수입이 많고, 주택자가소유군(아파트, 연립주택)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이며, 자아존중감 요인에서는 월수입요인이, 신체상태와 기능요인은 직업, 월수입, 성별(남), 질병이 없는 군에서 일치하고 있다. 이웃관계 요인은 종교(유)에서, 가족관계 요인에서는 연령(30대군), 교육(대졸이상), 직업, 월수입이 많을수록 결혼생활군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4. 건강 지각에 따른 삶의 질 분석

현재 건강상태에 대해서 지각한 정도와 빈도, 삶의 질 평균, 표준편차, F값은 (표 4)와 같다.

표 4.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지각수준과 삶의 질 총점평균치의 비교

현재건강상태	빈도(%)	평균±표준편차	F	P
매 우 좋 다	45(8.9)	168.55 ±		
좋은편이다	191(37.7)	154.03 ±		
보 통 이 다	203(40.1)	143.31 ±	32.801	.0000**
나쁜편이다	64(12.6)	140.07 ±		
아주나쁘다	3(0.6)	125.00 ±		
전 체	506(100%)	149.00 ±		

** P<0.01

표 5. 현재 건강지각과 삶의 질 구성요인 점수와의 상관관계

요 인	현재건강지각
정 서 상 태	0.1411 (p = .001) **
경 제 생 활	0.3312 (p = .000) **
자 아 존 중 감	0.3099 (p = .000) **
신체상태와 기능	0.5046 (p = .000) **
이 웃 관 계	0.1968 (p = .000) **
가 족 관 계	0.3255 (p = .000) **
삶의 질 총 점	0.4366 (p = .000) **

** p < 0.01

5. 삶의 질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구학적 제 변인과 현재 건강 지각이 삶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기 위해 단계적 중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 삶의 질 총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현재 건강지각으로 다변수상관계수 R = .4366 으로 19%의 설명이 가능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직업이었는데 두 변인을 합하면 R = .4447로 19.7%의 설명이 가능하였다(표 6).

표 6. 삶의 질 총점과 인구학적 제 변인과의 단계적 중회귀분석

변 인	B	R	R ²	F	P
현재건강지각	9.3533	.4366	.1906	118.69	.000**
직업	1.0305	.4447	.1978	62.01	.000**

** P < 0.01

V. 결 론

본 연구는 광주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하고 인구학적 변인과의 관계와 건강 지각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30세에서 59세 사이의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노유자(1988)가 개발한 삶의 질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1991년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검정, 분산분석, Pearson적률상관, 단계적 중회귀분석으로 검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광주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 정도는 149.08점이었고 범위는 최저 104점부터 최고 219점, 평균평점이 3.17 (범위 1~5)로 나타났다. 삶의 질의 각 요인별 순위는 정서상태가 가장 낮고, 경제생활, 자아존중감, 신체상태와 기능, 이웃관계, 가족관계요인 순이었다.

2.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 정도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으로는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P=0.004$) 가정월수입이 많을수록 ($P=0.001$), 결혼생활군에서 ($P=0.029$), 주거형태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 연립주택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49$).

3. 삶의 질 정도의 총합과 현재 건강지각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R=0.4366$ $P=0.000$)

4. 삶의 질 영향에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과 현재 건강지각을 단계적 중회귀 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건강지각의 설명력이 1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직업으로 0.7%가 추가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때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변인은 현재 건강지각이며 인구학적 변인으로는 교육정도, 월수입, 결혼상태, 주거 형태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유도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Wolff et al : Fundamentals of Nursing, Lippincott 7th edition, p.20,118, (1983)
2. Lohmann, N: Correlation of life satisfaction, morale and adjustment measures, *Journal of Gerontology*, **32**(1), 73~75, (1977)
3. Ferrans, C.E, & Powers, M.J.: Quality of life index;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1), 15~24, (1985)
4. Feed, M.M : Quality of life; The physician's dilemma,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65**, 109~111, (1984)
5. 노유자 :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8)
6. Benner patricia: Quality of life; aphenomenological perspective on explanation, prediction, and understanding in nursing scienc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1), 1~14, (1985)
7. Palmore, E & Luikart, C: Health and Social factor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3**, 68~80, (1972)
8. Carol, S. Burkhardt : The impact of Arthritis on Quality of life, *Nursing Research*, **34**(1), 11~16, (1985)
9. Dubos R.: The state of Health and the Quality of life, *Western Journal of Medicine*, **34**(1), 11~16, (1976)
10. 현오석 :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5)
11. Neugarten, B.L, Havighurst, R.J, Tobin, S.S :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16**, 134~143, (1961)
12. Wood, V, Wylie, M.L & Sheafor, B : An analysis of a short self-report measure of the life satisfaction, Correlation with rater judgements, *Journal of Gerontology*, **24**(4), 465~469,

(1969)

13. Padilla, G.V, Grant, M.M:Quality of life as a cancer Nursing outcome variabl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1), 45~60, (1985)
14. 전사자 : 만성질환자의 질적 삶에 관한 문헌고찰, 적십자간호전문대학 논문지 제 9 권, 46~69, (1987)
15. 김동일, 심재용, 강철인 : 한국 농촌 주민의 삶의 질 ; 사회지표구성을 위한 종합적 접근, 한국농촌경제연구소, (1981)
16. 정철모 : 한국 도시에 있어서의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1980)
17. 김명자 : 노인의 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제 20 권(3), 45~54, (1982)
18. 김종숙 : 한국 노인의 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19. 임미숙, : 도시 노인의 노인경 참여와 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1985)
20. 김인희 : 투석환자의 삶의 질 정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88)
21. 양승희 : 혈액 투석환자의 삶의 질 정도에 관한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9)
22. 한윤복외 3인 : 중년기 암환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 20 권(3), 399~412, (1990)
23. 김명자, 송경애 : 류마티스양 관절염 환자의 불편감, 자기존중감, 성격 및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제 20 권(2), 185~194, (1989)
24. 하재구 :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의 실태와 시정부의 공공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1986)

A Study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middle-aged in Kwangju

Kim Sook - jung

Dept. of Nursing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ing the degree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middle-aged in Kwangju and to identify the demographic variables regarding the Quality of life and to provide basic data to help them attain a better Quality of life.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the 506 people, both male and female between 30 and 59 years of age, married and residing in Kwangju.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 to June 5, 1991.

The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the Quality of life scale developed by Ro, You J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for ANOVA,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 were as follows.

1. The scores on the Quality of life scale ranged from 104 to 219 with as mean of 149.08, the mean scores (range 1 ~ 5) on the different dimenstions were family relation ship 3.46, relationship with neighbors' 3.28, physical state and function 3.03, self-esteem 3.40, economic life 3.04, emotional state 2.91.

2.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the Quality of life and demographic factors were as follow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educational background. ($p = .004$), monthly income ($p = .001$), marriage group ($p = .029$), apartment living style ($p = .049$).

3.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subjects perceptions of there current state of health and the Quality of life scores ($r = .4366$, $p = .000$).

4.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as follows:

1) The perception of current health status was the main predictor and

accounted for 19% of the total variance.

- 2) Occupation counted for an additional 0.7% to the total variance.